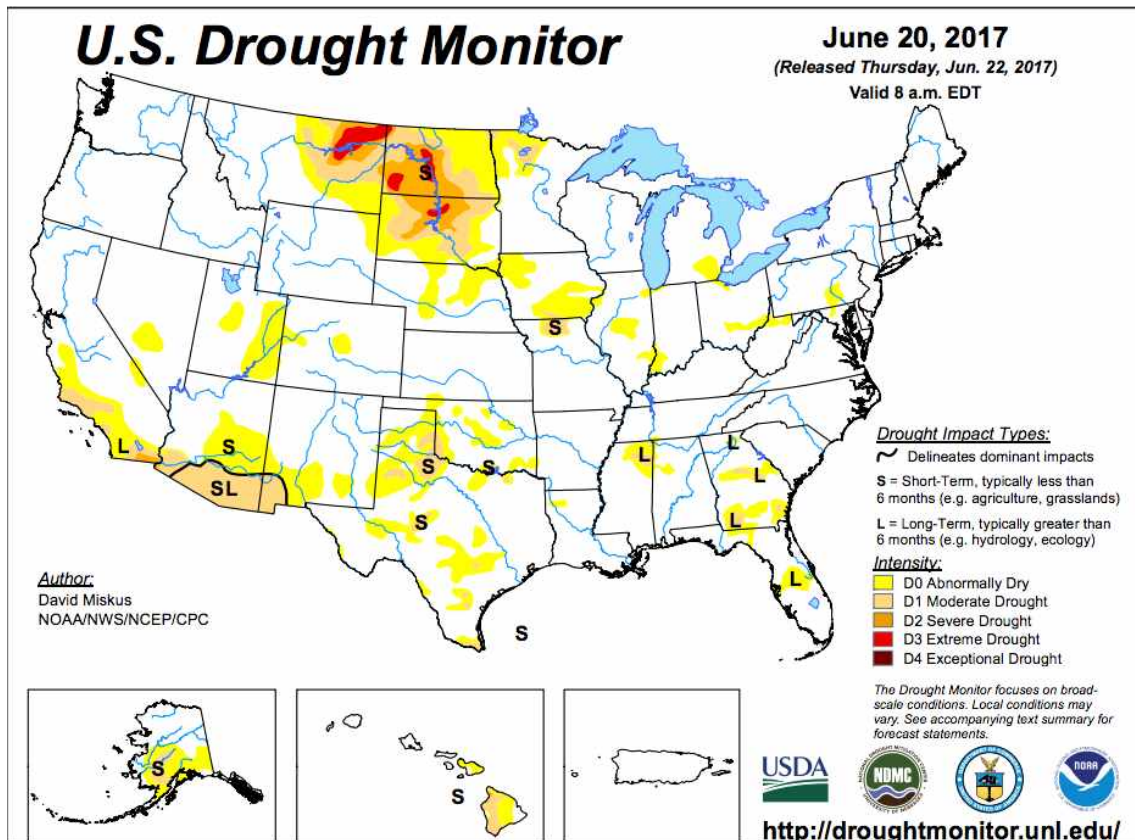


6월 27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(Volume 104, No. 26)

□ 미국 기후 현황(6/18~6/24)

텍사스와 루이지애나 경계지역에서는 6월 22일 새벽 열대성 저기압인 Cindy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산사태가 발생했다. 걸프만 연안 중부 지역과 남동부, 미시시피 델타 및 오하이오 일대에서도 많은 비가 내렸다. 대서양 연안 중부 지역에 있던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서부 지역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는데, Cindy가 소멸된 후 남은 구름들은 이후 이 저기압에 흡수되었다. 북부 평원과 중서부 북부 지역에서는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에 비해 5°F 이상 낮아졌다. 하지만, 이번 비도 몬태나 동부와 다코타 서부의 가뭄 지역에는 내리지 않았고, 가뭄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. 남부 평원에서는 일시적으로 가뭄이 발생했지만, 겨울밀 수확작업에는 도움이 되고 있다. 캘리포니아 북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0°F 이상 높았는데, 캘리포니아의 Needles에서는 기온이 125°F까지 올랐고, 라스베가스에서는 기온이 117°F까지 올랐다. 서부 일대에서는 더운 날씨로 용수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.



□ 농업 현황 요약(6/19~6/25)

중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았고, 서부 전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았다.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5°F 이상 높았던 반면, 중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6°F 정도 낮았다. 미시시피강 일대에서부터 대서양 연안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았고, 비가 내려 농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. 열대성 저기압 Cindy로 인해 알라바마, 플로리다, 루이지애나, 미시시피 등에서는 많은 비가 내렸다.

□ 세계 기후 현황(6/18~6/24)

■ 유럽: 서부 일대에서는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졌고, 동부에서는 곳곳에서 비가 내렸다. 서부와 중부 유럽 일대에서는 지난 7일간 기온이 평년에 비해 5~9°C 정도 기온이 높았다. 스페인 중부와 남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40°C까지 올랐고, 이탈리아 북부와 프랑스, 독일 서부에서도 기온이 30°C 후반까지 오르내렸다. 스페인의 경우, 지난 6월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5°C 이상 오른 날이 14일이었고, 중부의 해바라기 재배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8°C 이상 오른 날이 13일이었으며, 남서부 안달루시아의 면화 재배지역에서는 개화기 중 낮 최고기온이 40°C까지 오른 날이 8일이었다. 이탈리아 북부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1~38°C까지 올랐는데, 앞서 언급한 지역들에서는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동유럽 일대에서는 3~2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

■ 구소련(서부): 러시아에서는 비가 내렸지만, 우크라이나에서는 가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. 러시아 서부와 남부 주요 곡창지역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5~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토양 수분 함량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 하지만,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서 수확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. 우크라이나에서는 북부와 중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10~4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결과적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과의 국경 지역에서 재배 중인 옥수수, 대두의 생육 상황은 매우 좋은 편이지만, 서부와 중부에서는 계속해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. 이들 지역에서 지난 90일 간 내린 비의 양은 평년의 50% 수준에 그치고 있다.

■ 동아시아: 중국 동부에서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. 북동부에서는 10~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, 이번 비는 특히 남부와 서부에서 지난 4주 동안 처음 내린 비였다. 북부 평원의 남부 지역에서도 10~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, 남부에서는 50~200mm 내외의 많은 비가 내렸다. Jiangxi, Guandong, Guangxi 등에서도 비가 내렸지만, 여전히 더 많은 비가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. Hubei, Anhui, Jiangsu 등에서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고, 지난 4주간 내린 비의 양은 평년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수준이다. 한반도에서는 지난 5월 1일 이후 내린 비의 양이 평년의 50%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. 일본에서는 25~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

■ 호주: 서호주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5~25mm 내외의 비가 또다시 내렸다. 하지만, 지난 5월 1일부터 내린 비의 양은 여전히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. 남호주와



빅토리아 북부에서는 1~1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뉴 사우스 웨일즈,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동부지역에서만 10~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비가 내리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, 최근 파종한 밀의 생육에는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 주요 밀 재배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°C 정도 높았다.

■ 아르헨티나: 대부분의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였다. Buenos Aires 남부 지역에서는 5~20mm 내외의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,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. 서부 농경지역인 Salta, La Pampa 등에서는 주 초반에 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았고, Santiago del Estero에서는 밤 동안에는 기온이 영하 5°C까지 내려가기도 했다. 이들 지역에서는 주 후반으로 가면서 기온을 회복해 낮 최고기온이 25~30°C까지 올랐다. 아르헨티나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6월 22일 기준 옥수수, 대두의 수확률은 각각 62%, 97%를 기록했다. 같은 기간 기준 밀의 파종률은 46%였고,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48%에 비해 조금 느린 편이다. Buenos Aires의 파종률은 28%로,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%p 빠른 수준이고, 보리의 파종률은 34%로, 지난 해 같은 기간의 21%에 비해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.

■ 브라질: 대부분의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였다. Rio Grande do Sul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, 주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6월 22일 기준 이 지역의 밀 파종률은 53%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74%에 비해서는 느린 속도를 보이고 있다. Parana 서부에서도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다. Sao Paulo, Mato Grosso do Sul 북부, 북부 내륙지역 등에서도 비가 내리지 않았고, 낮 최고기온은 30°C 중반까지 오르내렸다. 북동부 해안지역에서는 10~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